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6월 19일 성삼위일체 후 1주일[연중 12주일] · 다해 · 녹색

제57-24호

폭력의 악령을 물리치는 신앙

(루가 8:26-39)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병든 하인을 염려하는 이방인 백인대장, 외아들마저 잃는 저주를 받은 과부, 그리고 행실이 나쁘다고 평판이 난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더러운 악령이 떼로 붙은’ 가련한 사람을 대면하십니다. 당시 종교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가까이하거나 관심 두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별나고 처지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한 이들’과 접촉하여 ‘오염’되는 일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염’과 대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대면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꺼리며 싫어하더라도, 바르고 옳은 일이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생명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감행하는 일이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만난 ‘마귀 들린 사람’의 처지가 참담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오가며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괴력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갇든 갖가지 상징이 뚜렷합니다. 문명과 담을 쌓으려는 미개함, 절망과 죽음을 부추기는 문화, 바른 비판을 두고 참견하지 말라는 억지, 스스로 삼가지 못하여 멋대로 하려는 방종의 그림자가 어둡습니다.

이 ‘악령’의 이름이 ‘군대’라 하니, 당시로는 섬뜩한 이름입니다. 그때 ‘군대’는 포악한 식민지 점령군 로마 군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군대와 무기가 만드는 전쟁의 참상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에 희생당하는 이들을 목격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오염’에 기꺼이 손을 대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라는 폭력의 힘과도 대결하십니다.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폭력은 어떤 것이라도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폭력을 당하는 일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힘 있는 이들이 약한 이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라 이런 ‘폭력의 악령’을 무로 꿰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단호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손해와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과 폭력의 ‘군대 마귀들’을 없애는 일에 수많은 ‘돼지떼’라는 재산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할 지경입니다. 말이 간청이지, 떠나라는 위협이 분명합니다.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오염’에 관여하고 ‘폭력의 악령’을 물리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을 되찾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우리 자신입니다. 정죄와 혐오, 희롱과 차별, 폭력과 죽음의 사회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실천하여라.”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종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중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중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성삼후시기(연중시기) 전례 안내

성삼후시기 전례곡은 C곡입니다. 성가 82장(영광송), 83장(거룩하시다), 84장(하느님의 어린 양)을 따릅니다.

2.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교우 주소록 갱신과 수정

교우 주소록을 갱신하여 수정하고 있으니, 구역과 단체를 중심으로 수정 내용을 종합하여 주시고, 개인이 신청할 경우, 새 주소와 연락처를 이메일 stchris@anglican.kr로, 또는 카카오톡 stchris1966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6월 교회위원회의 보고

- 일상 심방 정상화와 교우 연락처 갱신 작업
- 전례 회복에 따른 전례 봉사단 재정비
- 성공회 남성합창단의 성당 사용 허가 (매주 화요일 저녁)
- 성당 후문 가건물 철거와 제단 공간 정돈 가견적 보고
- 성당 정문 쪽 간판 철거와 교채 작업 허가 (영등포구청 도로로 간판 개선 사업 - 전액 지원)

2. 구역 모임 헌신 예배

일시: 6월 22일(수) / 장소: 성전
예배 후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구역장과 인도자, 교우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성직자원 포럼

일시: 6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주교좌성당 프란시스홀
주제: 성서적 배경과 교회론에서 본 주교제

4. 여름성경학교 교사 감수회

일시: 6월 25일(토) 오전 10 - 오후 3시 / 장소: 세실극장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쌀보리 2kg 7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남철(23일) 김영해 박건호 박건희(24일) 허의진(25일)

◆ 떡과 음료 나눔

주애다(애다) 교우가 모친 별세를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봉헌해 주셨습니다.

◆ 교우별세소식

주애다 애다(김영대 요나)교우의 모친 조석구 앵니다 교우가

지난 6월 14일에 별세(향년98세)하셨습니다. 고인의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켈트 전시 - 성당 로비와 다목적 홀 ◆

성령강림주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켈트' 작품을 성당 로비와 다목적홀에 전시합니다. 우리 성당의 문해화 사라 교우의 작품입니다. 켈트는 버려진 조각,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형상을 서로 모으고 엮어서 큰 아름다움과 쓸모를 만드는 멋진 예술 작업입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어떻든, 우리 자신의 다채로운 삶을 하느님께 드리도록 초대하십니다. 서로 엮어서 만드는 아름다움에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당은 이후에도 여러 예술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나누려 합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리며 우리 삶이 것처럼 환하게 피워나가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현금

김복자 김중희 박영수 송미경 신명식 오현희 유인환 유호애 윤선구 윤용환 정은숙 차기성 추형두

■ 주정현금

김경아 김경찬 김삼홍 박성준 박소현 박주영 서정민 선병순 송미정 신희숙 유권열 유희주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이경희 이광자 이성빈 이은미 이자영 이정숙 이종한 전병도 정명옥 정상임 주창순 차기성 한부순

■ 감사현금

강현모(세례) 공현정(생일) 김복근(심방)
김용학(생활/딸가족) 선병순(생활)
신명식(별세기념) 심종은·최유정(전입)
심주민(생활) 윤영옥(평일미사) 장분순(목주)
〈교회위원회 논의와 결의에 따라, 다음 주일부터 개인별 감사 현금 액수는 주보에 실지 않으며, 확인을 위하여 봉헌한 교우에게 주중에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기타현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현금

■ 성공회대장학금 유혜정

■ 예수사랑현금 이보연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현금) 일반 · 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성당, 거룩한 기도의 집

코로나 전염증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 대책이 발표되면, 성공회로서는 의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공서는 천주교회를 ‘성당’으로, 개신교회를 ‘교회’로, 불교를 ‘사찰’로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회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배의 실제 모습으로 보면 성공회는 ‘성당’ 분류에 해당하지만, 신앙의 개혁 정신을 받아들인 역사에서 보면 ‘교회’ 분류에도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구분이 원래 뜻과 범주에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공동체를 모두 ‘교회’(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파와 전통이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가톨릭) 교회’의 본래 뜻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교단 이름 자체에 이를 깊이 담아 ‘거룩한 보편 교회’(holy 聖 catholic 공 church 會)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편 교회를 특정한 지역에서 친교와 선교로 실현하는 공동체를 ‘교구’(diocese)와 그에 포함된 ‘지역교회’(parish)라고 합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를 성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큰 범주 아래에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특정 장소와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당에 같이 대응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공회는 그동안 지역교회를 지칭할 때, 성당과 교회를 혼용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밖으로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표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표제를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에서 <성공회 영등포 성당>으로 축약하고 고쳤습니다. 외부로도 쉽고 분명하게 알려려는 이유입니다.

‘대한’은 한국을 표시하므로, 다른 나라를 향해서라면 모를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성공회’로만 쓰면 더 쉽고 알리기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공회라는 ‘교회’ 안에서 하나이며, 영등포 지역에 세운 실제 성당에서 예배하며 친교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앞 ‘성공회’에 교회의 뜻을 표시했으니, 뒤에 다시 교회를 반복하여 쓸 필요가 없으며, 우리 예배의 특성으로 보나, 제대가 있는 거룩한(聖) 기도의 집(堂)이라는 점에서 ‘성당’이 적절합니다.

우리 성당은 신자와 더불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집’(聖堂)입니다. 성전에 오르며 만나는 우리 성당 초석을 되새겨 기억합니다.

“여기 근로자의 집 세워 하느님의 사랑을 심는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상황을 넘어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 ◆ 사회와 정치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하여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하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얼(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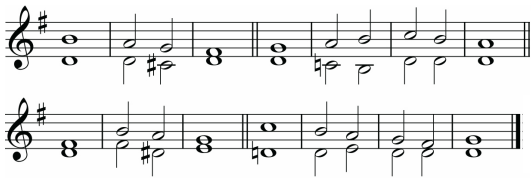
입당성가(선다) ♪ 254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45 다함께
영광송(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주 하느님,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시어 모든 분열의 상처를 씻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이사 65:1-9 말은이
시편 시편 22편 다함께



1 주여, 모르는 체 |마소서,
○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시.
2 칼에 맞아 죽지 않게 이 목숨 건져 |주시고
○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 입에서 |뱀내|주소시.
3 가련한 이 몸 사자 입에서 살려 |주시고,
○ 들소 뿔에 반하지 않게 |보호|하소서.
4 당신의 이름을 겨레에게 |알리고
○ 예배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5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돌려라.
6 이스라엘 후손들아,
○ 주 앞에 모두 다 머리를 |조아|려라.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2 독서(읽는다) 갈라 3:23-29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301 / ♪ 55 말은이
복음서(선다) 루가 8:26-39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56 다함께
봉헌성가 ♪ 412장/유빌라테회 다함께
예물기도 ✧ 256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곡) ✧ 257 / ♪ 82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곡) ✧ 270 / ♪ 83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71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365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6월 19일)		다음 주일 성찬례 (6월 26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김경아	우영현	박계자
2독서	서정민	전병도	김태영	이정숙
대 도	신명식	김종희	신명식	이성식
십자가	박해웅	이용해	윤용환	차기성
다음 주일 6월 26일	전례독서 열왕상 19:15-16, 19-21 시편 16 갈라 5:1,13-25 루가 9:51-62 성 가 입당 258장 봉헌 346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388 장			
교 회 청 소	6월 25일 모니카회 1조 곽순연 변금숙 변진선 선병순 윤옥량		7월 2일 모니카회 2조 김용학 정준희 이정숙 신희숙 정상임 최효운	